

<인문 B>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문항번호	인문B / 문제1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핵심개념 및 용어	협상, 대안탐색, 의사소통
예상 소요 시간	4분 /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은 학생 측과 학교 측의 협상 내용의 일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측: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매점 앞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교실에서 멀리 떨어진 야외에 있고, 협소한 편입니다. 이에 저희 학생회에서는 학생 휴게 공간을 실내로 옮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학교 측: 현재 학생 휴게 공간이 열악하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건물 내에는 휴게 공간을 마련할 만큼 여유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혹시 현재 장소를 이용하는 데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 말해 줄 수 있나요?

학생 측: 일단 교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 4층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시간이 부족해서 이용이 어렵기도 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학교 측: 그렇군요. 학교도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단과 매점 근처에 주의를 당부하는 팻말을 설치했습니다.

학생 측: 주의 팻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휴게 공간을 교실과 가까운 실내로 옮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학교 측: 리모델링 중인 도서관에 정보 검색실과 지식 나눔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 측: 그러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학생들도 환영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내 장식을 휴게 공간처럼 꾸며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학교 측: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생회 측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휴게 공간 이전은 어렵지만, 그 대신 매점 옆에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휴게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 휴게 공간을 보면 학생들이 매점에서 간식을 먹고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주변이 좀 지저분합니다.

학생 측: 그 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청소 당번을 정해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문제 1]

<보기>는 협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협상 전략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의 ㉠과 같은 협상 전략을 사용한 학교 측의 발언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 <보기> —————

일반적으로 협상은 시작 단계-조정 단계-해결 단계를 거친다. 이 가운데 조정 단계에서는 양측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후, 대안을 상호 검토하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게 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우선과 차선으로 나눈 후 우선을 수용하지 못하는 대신 차선은 수용하는 방식으로 입장 차이를 조정해 나갈 수 있다.

3. 출제 의도

고등학교 1학년 국어에서 협상에 대한 이해와 실행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만족할 만한 대안을 모색하는 의사 결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로 전개된다. 이 중 조정단계에서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를 조절하면서 서로 합의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고교 교육과정을 착실히 이행한 응시자라면 자주 경험했을만한 내용과 형식의 지문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학생과 학교측의 협상 내용을 소재로 하여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10국01-04] 협상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탐색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10국01-05]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신유식 외	미래앤	2019	306
	국어	이삼형 외	지학사	2019	270

5. 문항 해설

<보기>에서는 협상의 조정 단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우선과 차선으로 나눈 후 우선을 수용하지 못하는 대신 차선은 수용하는 방식으로 입장 차이를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회 측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휴게 공간 이전은 수용하지 못하는 대신 차선책으로서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휴게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방식으로 입장차이를 조정해가고 있다.

6. 채점 기준

- ‘학생회’와 ‘확충하겠습니다’가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함.
예) 학생회, 확충하겠습니다
학생회~확충하겠습니다
- 정답 이외에 다른 내용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배점
학생회	5
확충하겠습니다	5

--	--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답안	배점
학생회	5
확충하겠습니다	5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문항번호	인문B / 문제2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사실적 이해, 읽기 과정
예상 소요 시간	5분 /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바로크 양식의 지나친 장식주의에 반발하여 18세기에 등장한 구조 합리주의는 이전 건축물의 구조에서 합리적인 특성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바로크 양식의 두꺼운 벽체가 장식 양을 늘리기 위한 장식주의의 산물일 뿐 구조적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낭비라고 판단하여, 기둥을 활용하여 구조적으로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건축 모델을 탐구하는 방식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 합리주의는 19세기에 이르러 강철이라는 새로운 철물 재료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주철은 16~17세기부터 건축물의 보강재로 종종 활용되었지만, 강철은 1709년 처음 발명된 이래 순수 공업 재료로만 쓰이다가 건축에는 1820년경부터 도입되었고 1870년대부터는 주재료로 그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강철이 건축의 주재료로 등장하면서 19세기 구조 합리주의를 내세운 신건축 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것이다.

신건축 운동의 중심 국가는 프랑스와 영국이었다. 프랑스는 이론 연구가 두드러졌는데 건축가들은 실험 정신을 지니고 예술적 가능성을 창작에 다양하게 응용하며 19세기 구조 합리주의라는 독립 양식을 만들어 나갔다. 이에 비해 영국은 전통적인 실용 정신을 발휘하며 공장, 창고, 상업 건물 등 실용 건물에서 앞서 나갔다. 이런 두 나라의 경쟁은 특히 만국 박람회 전시관, 박물관, 백화점, 교회 등 고급 건물을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건축물들은 기둥 간격이 넓은데다 강철로 된 가는 기둥과 투명한 유리를 조화시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환한 빛으로 밝고 장쾌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특히 당시 기독교 교회와 부르주아 자본가들은 철골 건축의 이런 물리적, 기능적 특징이 갖는 장점을 선호하였다.

만국 박람회는 19세기 건축에 내재된 경쟁 구도가 드러난 장이었다. 만국 박람회

는 국가 간 산업화 경쟁이 일어나는 자본주의의 경쟁 공간이었지만, 건축적으로는 장식주의적 요소가 강한 역사주의*와 신건축 운동이 날카롭게 맞부딪치는 공간이기도 했다. 산업 혁명이 일정한 궤도에 오른 19세기는 만국 박람회의 전성기였는데, 18세기부터 정착한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진 시기였다. 영국은 1851년 런던 만국 박람회 때 강철로 만든 뼈대와 유리만으로 지은 전시관인 ㉠수정궁을 선보임으로써 19세기 신건축 운동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18세기부터 이어져 온 건축 기술을 활용하여 짓긴 했지만 철골 뼈대에 유리로 건물 전체를 뒤덮어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수정궁은 대형 공간 속에 밝고 균질한 빛이 가득 차면서 건축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 주었다. 한 신문에서 건물이 수정 같다고 하면서 수정궁은 이 건물의 정식 명칭이 되었다.

영국과 경쟁하던 프랑스는 수정궁에 밀려 뒤처진 듯하였으나 1878년과 1889년에 연달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상황을 뒤집었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한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에펠 탑을 탄생시키며 수정궁을 능가하는 큰 획을 그은 것이다. 건축가 에펠은 수에즈 운하 공사에 참여했을 때 봤던 피라미드를 기본 모티프로 삼아 에펠 탑을 건설했다. 전체 구성은 기단, 몸통, 탑의 기본 삼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전의 다리 건설에 적용했던 아치 기술을 이용하여 탑을 수직으로 올리고 이전 다리에 활용했던 ‘거미집 형식’을 적용하여 총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310미터짜리 탑을 탄생시켰다. 이로 인해 비로소 프랑스는 국가적 자존심에 걸맞은 상징물을 갖게 되었다.

*역사주의: 건축에서 역사적 건축물을 모방하여 전통적인 양식으로 짓는 경향을 이룸.

[문제 2]

<보기2>는 제시문과 <보기1>을 참고하여 ㉠~㉢의 특성을 정리한 내용이다. <보기2>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보기1>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는 ㉢기계관이라는 또 하나의 걸작을 남겼다.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이 활용되었다. 먼저 강철이라는 가벼운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아치를 이루는 부분의 두께가 매우 얇아졌다. 그리고 지면과 면으로 접하는 안정된 ‘면지지’가 아니라 바닥에 구멍을 뚫고 경첩을 박은 ‘점지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강철의 팽창과 수축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교량 기술자들이 1870년대 이후부터 첨단 기술로 사용하던 것이다.

<보기2>

㉠~㉣은 모두 (㉠)을/를 소재로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 중 (㉡)와/과 (㉢)은/는 이전에 다리 건설에 적용되던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이라는 특징이 있다.

㉠: _____ ㉡: _____ ㉢: _____

3. 출제 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읽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독서의 맥락과 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적절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고 특히 제시문의 내용을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분석적으로 판단한 후에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고교 교육과정을 착실히 이행한 응시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문·예술 분야의 제재로 구성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	방민호 외	미래앤	2019	74~75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9	116~117

5. 문항 해설

①, ②, ③의 각 항목에 관한 내용에 '강철'을 소재로 하였다는 부분이 확인된다. ㉠과 ㉡은 다리(교량) 기술을 적용한 건축물이라는 특징이 소개되어 있다.

6. 채점 기준

-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
- ①은 '강철'만 정답으로 인정함. '철물, 주철'은 오답으로 처리함.
- ②와 ③은 순서가 바뀌어도 정답으로 처리함.
- 정답 외에 다른 답안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배점
①: 강철	4
②: ㉠	3
③: ㉡	3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답안	배점
①: 강철	4

②: L	3
③: E	3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문항번호	인문B / 문제3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사실적 이해, 읽기 과정
예상 소요 시간	5분 /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

바로크 양식의 지나친 장식주의에 반발하여 18세기에 등장한 구조 합리주의는 이전 건축물의 구조에서 합리적인 특성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바로크 양식의 두꺼운 벽체가 장식 양을 늘리기 위한 장식주의의 산물일 뿐 구조적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낭비라고 판단하여, 기둥을 활용하여 구조적으로 효율성을 높인 새로운 건축 모델을 탐구하는 방식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 합리주의는 19세기에 이르러 강철이라는 새로운 철물 재료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주철은 16~17세기부터 건축물의 보강재로 종종 활용되었지만, 강철은 1709년 처음 발명된 이래 순수 공업 재료로만 쓰이다가 건축에는 1820년경부터 도입되었고 1870년대부터는 주재료로 그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강철이 건축의 주재료로 등장하면서 19세기 구조 합리주의를 내세운 신건축 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것이다.

신건축 운동의 중심 국가는 프랑스와 영국이었다. 프랑스는 이론 연구가 두드러졌는데 건축가들은 실험 정신을 지니고 예술적 가능성을 창작에 다양하게 응용하며 19세기 구조 합리주의라는 독립 양식을 만들어 나갔다. 이에 비해 영국은 전통적인 실용 정신을 발휘하며 공장, 창고, 상업 건물 등 실용 건물에서 앞서 나갔다. 이런 두 나라의 경쟁은 특히 만국 박람회 전시관, 박물관, 백화점, 교회 등 고급 건물을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건축물들은 기둥 간격이 넓은데다 강철로 된 가는 기둥과 투명한 유리를 조화시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환한 빛으로 밝고 장쾌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특히 당시 기독교 교회와 부르주아 자본가들은 철골 건축의 이런 물리적, 기능적 특징이 갖는 장점을 선호하였다.

만국 박람회는 19세기 건축에 내재된 경쟁 구도가 드러난 장이었다. 만국 박람회

는 국가 간 산업화 경쟁이 일어나는 자본주의의 경쟁 공간이었지만, 건축적으로는 장식주의적 요소가 강한 역사주의*와 신건축 운동이 날카롭게 맞부딪치는 공간이기도 했다. 산업 혁명이 일정한 궤도에 오른 19세기는 만국 박람회의 전성기였는데, 18세기부터 정착한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진 시기였다. 영국은 1851년 런던 만국 박람회 때 강철로 만든 뼈대와 유리만으로 지은 전시관인 ㉠수정궁을 선보임으로써 19세기 신건축 운동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18세기부터 이어져 온 건축 기술을 활용하여 짓긴 했지만 철골 뼈대에 유리로 건물 전체를 뒤덮어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수정궁은 대형 공간 속에 밝고 균질한 빛이 가득 차면서 건축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 주었다. 한 신문에서 건물이 수정 같다고 하면서 수정궁은 이 건물의 정식 명칭이 되었다.

영국과 경쟁하던 프랑스는 수정궁에 밀려 뒤처진 듯하였으나 1878년과 1889년에 연달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상황을 뒤집었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한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에펠 탑을 탄생시키며 수정궁을 능가하는 큰 획을 그은 것이다. 건축가 에펠은 수에즈 운하 공사에 참여했을 때 봤던 피라미드를 기본 모티프로 삼아 에펠 탑을 건설했다. 전체 구성은 기단, 몸통, 탑의 기본 삼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전의 다리 건설에 적용했던 아치 기술을 이용하여 탑을 수직으로 올리고 이전 다리에 활용했던 ‘거미집 형식’을 적용하여 총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310미터짜리 탑을 탄생시켰다. 이로 인해 비로소 프랑스는 국가적 자존심에 걸맞은 상징물을 갖게 되었다.

*역사주의: 건축에서 역사적 건축물을 모방하여 전통적인 양식으로 짓는 경향을 이룸.

[문제 3]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 <보기> —

고급 건축을 통해 19세기 철물 건축을 선도한 인물로 프랑스 건축가 부알로를 들 수 있다. 부알로의 생퇴젠 성당은 그 외양이 단순했기에 장식주의적 요소를 강조했던 (①)와는/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고딕 건축 양식의 두꺼운 석재 기둥 대신 가는 철물 기둥을 사용했음에도 고딕 성당과 동일하게 창문으로만 빛이 들어오는 구조로 인해 넓은 실내의 조도(照度)를 고딕 성당의 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생퇴젠 성당은 (②)의 입장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①: _____

②: _____

3. 출제 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읽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독서의 맥락과 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적절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고 특히 제시문의 내용을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분석적으로 판단한 후에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고교 교육과정을 착실히 이행한 응시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문·예술 분야의 제재로 구성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독서	방민호 외	미래앤	2019	74~75
교과서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9	116~117

5. 문항 해설

역사주의가 장식주의적 요소를 강조하였다는 점이 제시문에 소개되고 있다. 바로크 양식도 장식주의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정답이 될 수 있다. 한편, 신건축 운동 진영의 대표적인 특징은 ‘밝고 장쾌한 실내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퇴젠 성당은 신건축 운동 입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6. 채점 기준

- ①, ②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

- 정답 외에 다른 답안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배점
①: 역사주의 또는 바로크 양식	5
②: (19세기) 신건축 운동 또는 (19세기) 구조 합리주의	5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답안	배점
①: 역사주의 또는 바로크 양식	5
②: (19세기) 신건축 운동 또는 (19세기) 구조 합리주의	5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문항번호	인문B / 문제4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사실적 이해, 읽기 과정
예상 소요 시간	4분 / 전체 8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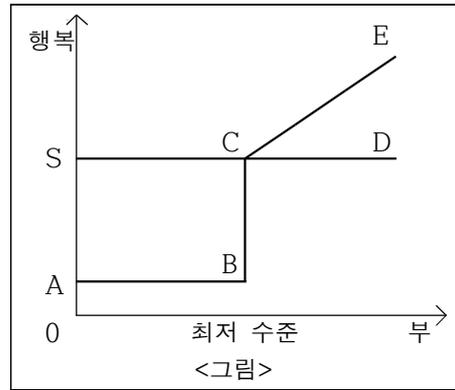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5)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마음의 평온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부와 지위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는 건강하고, 빛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추가되는 어떤 재산도 쓸데없는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고, 빛을 질 필요가 없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입이 필요할 뿐이다.

애덤 스미스는 그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 즉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사람은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고 보았다.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괴로움에 동감하지 않으며,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므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한층 더 괴롭게 만든다.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희망을 꺾고 마음의 평온을 어지럽힌다.

애덤 스미스는 ‘지혜로운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구분하여 부와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림>을 살펴보자.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부의 크기를, 세로축은 행복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때 점 C에 대응하는 부의 수준은 그 사회에 건강하고, 빛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을 나타내며, 점 A부터 점 B까지는 부의 크기가 최저 수준인 점 C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다. 여기에서 꺾은선 그래프 ㉠ABCD는 ‘지혜로운 사람’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 꺾은선 그래프 ㉡은/는 ‘연약한 사람’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 해당한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연약한 사람’은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은 후에도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대된다고 생각한다. 부를 쌓음으로써 생활의 쾌적함이 향상됨과 동시에,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화스러운 식사도, 아름다운 의복도, 훌륭한 저택도 실제로 가져 보면 대단치 않은 효용을 가진 장난감에 불과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을 번거롭게 만든다. 이처럼 큰 부를 획득한다 한들 실제로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애덤 스미스는 이야기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최저 수준을 넘는 부의 증가가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최저 수준을 밑도는 부밖에 얻을 수 없는 경우, 행복의 수준은 지극히 낮아지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점 A부터 점 B까지의 부와 점 C 이상의 부에서 느끼는 행복의 차이는 엄청나다. 한편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현자’라면, 부와 행복의 관계는 그래프 ㉢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자’는 모든 상황을 동등하게 보고 부동심(不動心)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때와 달리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받을 때에는 동요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한다. ‘연약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빈곤하다는 이유로 경멸과 무시를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문제 4]
 ㉠~㉢은 각각 제시문의 <그림>에 존재하는 어떤 그래프를 가리킨다. 제시문의 문맥을 고려하여 ㉠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 ㉢을 완성하시오.
 ㉡: _____
 ㉢: _____

3. 출제 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읽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독서의 맥락과 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적절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고 특히 제시문의 내용을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분석적으로 판단한 후에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도식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고교 교육과정을 착실히 이행한 응시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회·문화 분야의 제재로 구성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독서	방민호 외	미래앤	2019	74~75
교과서	독서	한철우 외	비상	2019	142

5. 문항 해설

정답:

㉠: ABCE 또는 ECBA

㉡: SCD 또는 DCS 또는 SD 또는 DS

해설:

- ㉠: '연약한 사람'은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은 후에도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대된다고 생각한다. 제시문의 <그림>에서 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ABCE 또는 ECBA'가 된다. '
- ㉡: '현자'는 모든 상황을 동등하게 보고 부동심을 유지한다. 제시문의 <그림>에서 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SCD 또는 DCS 또는 SD 또는 DS'가 된다.

6. 채점 기준

- ㉠, ㉡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
- 정답 외에 다른 답안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배점
㉠: ABCE 또는 ECBA	5
㉡: SCD 또는 DCS 또는 SD 또는 DS	5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답안	배점
㉠: ABCE 또는 ECBA	5
㉡: SCD 또는 DCS 또는 SD 또는 DS	5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문항번호	인문B / 문제5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사실적 이해, 읽기 과정
예상 소요 시간	4분 / 전체 8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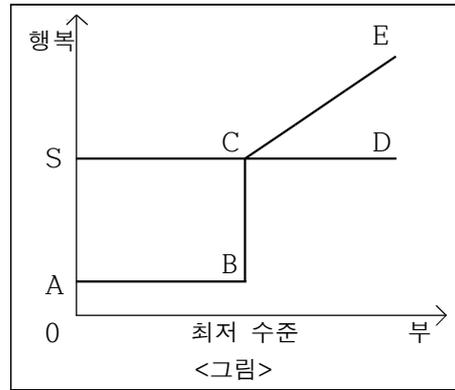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5)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마음의 평온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부와 지위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는 건강하고, 빛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추가되는 어떤 재산도 쓸데없는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고, 빛을 질 필요가 없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입이 필요할 뿐이다.

애덤 스미스는 그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 즉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사람은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고 보았다.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괴로움에 동감하지 않으며,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므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한층 더 괴롭게 만든다.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희망을 꺾고 마음의 평온을 어지럽힌다.

애덤 스미스는 '지혜로운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구분하여 부와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림>을 살펴보자.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부의 크기를, 세로축은 행복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때 점 C에 대응하는 부의 수준은 그 사회에 건강하고, 빛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을 나타내며, 점 A부터 점 B까지는 부의 크기가 최저 수준인 점 C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다. 여기에서 꺾은선 그래프 ㉠ABCD는 '지혜로운 사람'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 꺾은선 그래프



㉡은/는 '연약한 사람'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 해당한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연약한 사람'은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은 후에도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대된다고 생각한다. 부를 쌓음으로써 생활의 쾌적함이 향상됨과 동시에,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화스러운 식사도, 아름다운 의복도, 훌륭한 저택도 실제로 가져 보면 대단치 않은 효용을 가진 장난감에 불과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을 번거롭게 만든다. 이처럼 큰 부를 획득한다 한들 실제로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애덤 스미스는 이야기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최저 수준을 넘는 부의 증가가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최저 수준을 밑도는 부밖에 얻을 수 없는 경우, 행복의 수준은 지극히 낮아지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점 A부터 점 B까지의 부와 점 C 이상의 부에서 느끼는 행복의 차이는 엄청나다. 한편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현자'라면, 부와 행복의 관계는 그래프 ㉢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자'는 모든 상황을 동등하게 보고 부동심(不動心)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때와 달리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받을 때에는 동요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한다. '연약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빈곤하다는 이유로 경멸과 무시를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문제 5]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보기>의 ㉠, ㉡가 어떤 유형의 인간에 해당하는지 서술하시오.

<보기>

굶주림에 지쳐서 마을을 떠돌던 A는 가장 부유해 보이는 집에 들어가 음식을 청했다. 가난을 극복하고 사업가로 성공한 집주인 B는 젊었을 때의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A에게 많은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거실에 값비싼 보석이 놓여 있는 것을 본 A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보석을 훔쳐서 달아났다. 이때 A를 목격한 부유한 ㉠상인 C는 보상금을 바라며 A를 붙잡아 B에게 데려갔다. 그러나 B는 아무말 없이 지갑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A에게 주었다. 이후 ㉡삶의 태도가 바뀐 A는 열심히 일해 돈을 벌기 시작했으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며 살았다.

㉠: _____

㉡: _____

3. 출제 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읽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독서의 맥락과 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적절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고 특히 제시문의 내용을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분석적으로 판단한 후에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고교 교육과정을 착실히 이행한 응시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회·문화 분야의 제재로 구성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	방민호 외	미래앤	2019	74~75
	독서	한철우 외	비상	2019	142

5. 문항 해설

- ㉠: <보기>에서 ‘상인 C’는 이미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노리고 A를 붙잡아 B에게 데려 갔다. 따라서 상인 C는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연약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보기>에서 ‘삶의 태도가 바뀐 A’는 돈을 번 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며 살았다. 이는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에 해당한다.

6. 채점 기준

- ㉠, ㉡ 각 항목이 정확하게 포함된 기술만 정답으로 처리함.
예) ㉠은 연약한 사람이다.
㉠은 애덤 스미스가 말한 연약한 사람/인간에 해당한다. 등
- 정답 외에 다른 답안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배점
㉠: 연약한 사람	5

㉞: 지혜로운 사람	5
------------	---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답안	배점
㉠: 연약한 사람	5
㉞: 지혜로운 사람	5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문항번호	인문B / 문제6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작품의 내재적 요소, 언어예술
예상 소요 시간	3분 /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6~7)

맛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일곱 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즐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즐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십 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 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그래 저 십 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문제 6]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의 ㉠에 해당하는 시구(詩句)를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 <보기> —

고정희의 「우리동네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타자마자 즐기 시작하는 구자명의 모습을 통해 직장과 가사라는 이중의 노동에 시달리는 현대 여성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시인은 ㉠가녀린 꽃과 삶의 고통을 결합한 시어들을 통해서 죽음에 비견될 만큼 힘겨운 여성의 삶을 아름답고도 고통스럽게 형상화하였다.

①: _____

②: _____

3. 출제 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이해하고 작품 자체를 하나의 언어 예술로서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출제하였다. 시의 형식적 요소 중 시어가 작품의 주제에 드러내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와 이를 통해 시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어떻게 예술적 형식으로 포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최원식 외	창비	2019	72
	문학	정호웅 외	천재교육	2019	258

5. 문항 해설

제시문의 시는 의미상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단락은 구자명씨의 조는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단락은 그 졸음의 원인을 화자가 추측 구성해 본 부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화자가 구자명씨의 졸음과 수면부족을 더욱 일반화된 맥락에서 이미지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여성들의 희생은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지시하면서, 또한 그 힘겨움이 여성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것임을 동시에 말하기 위해 “아름다운 고통”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때 각각의 아름다

움은 흔들림의 이미지를 차용한 가녀린 “팬지꽃”의 아픔으로, 작고 넓게 무리지어 있는 “안개꽃”의 멍에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의 이미지를 꽃의 작고 가녀린 이미지로, 그러한 여성들이 감당한 고통을 아픔과 멍에로 이해할 수 있다면 “팬지꽃 아픔”과 “안개꽃 멍에”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문제에서 “가녀린 꽃과 삶의 고통을 결합한 시어”라고 했으므로 꽃이름만 쓰거나 아픔만 나열되어서는 정답으로 인정될 수 없다.

6. 채점 기준

- ①, ②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
(‘팬지꽃’, ‘안개꽃’, ‘아픔’, ‘멍에’만 기술된 경우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 ①, ②의 배열 순서는 상관 없음.
- 정답 외에 다른 답안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배점
①:팬지꽃 아픔	5
②:안개꽃 멍에	5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답안	배점
①:팬지꽃 아픔	5
②:안개꽃 멍에	5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	------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문항번호	인문B / 문제7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작품의 내재적·외재적 요소, 언어예술
예상 소요 시간	3 분 /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6~7)

맛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일곱 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즐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십 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 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그래 저 십 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문제 7]

<보기2>는 <보기1>을 읽고 제시문을 이해한 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적절한 시행(詩行)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 <보기1> —————

맞벌이 부부인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자신들이 하는 가사 노동의 목록을 정리한 후 비교해 보았다. 남편 A 씨가 적은 가사 노동은 ‘아이들의 등하교’, ‘설거지’, ‘아이들과 놀아 주기’ 등 8개였던 것에 비해, 아내 B 씨는 190여 개의 가사 노동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전달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시댁 식구 생신 선물 및 음식 준비’, ‘행주 삶기’, ‘세탁기 청소’ 등과 같이 평소 남편인 A 씨가 무심히 지나쳤던 일들도 적혀 있었다. 최근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직장인 여성의 비율은 25% 이내였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의 주요 원인이 가사 노동에 대한 불평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문

————— <보기2> —————

불평등은 이 시에서 비대칭적인 이미지로 제시된다. 구자명은 복수의 대상물과 대비되는 자리에 배치된다. 구자명은 출근길에서는 ‘아침 햇살, 진달래, 밤꽃’의 이미지와 대비되고, 집에서는 ‘아기, 시어머니, 남편’의 이미지와 대비된다. 이러한 비대칭은 구자명에 대해 서술하는 화자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의 후반부에서 구자명의 상황은 여성 일반의 문제로 확대된다. 가사 노동에 대한 불평등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폭로는 시에서 (㉠)(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은/는 이러한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화자에게만 인식된다는 비대칭성을 보여준다.

3. 출제 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이해하고 작품 자체를 하나의 언어 예술로서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출제하였다. 시의 형식적 요소 중 시어가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와 이를 통해 시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어떻게 예술적 형식으로 포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9	68
교과서	문학	정호웅 외	천재교육	2019	156

5. 문항 해설

<보기1>의 신문기사의 내용에는 가사노동의 편중과 불평등한 분배와 여성들의 불만족을 다루고 있는 기사로, 이는 다시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편중과 이러한 가사노동의 분배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회적 관점에 착안하여 시를 들여다보면, 시에서 구자명의 희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자명의 불평등을 비대칭적인 이미지의 제시를 통해서 시각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보기2>는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비대칭적인 이미지의 제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이 시의 이미지전략을 이해하고 그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시행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미지들의 비대칭이 구자명의 것이 아니라 화자의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면, 작품의 후반부에 화자가 보여주는 인식이 다시 거대한 사회적 무지와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회적 무지를 반영한 시행이 “아무도 모르게”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 정답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
- 정답 외에 다른 답안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분점수 없음.

답안	배점
아무도 모르게	10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답안	배점
아무도 모르게	10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문항번호	인문B / 문제8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작품의 내용과 형식, 작품의 맥락, 문학과 시대 상황
예상 소요 시간	5 분 /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모님, 내 뽕아 드린 견적서 좀 쥘 보세요. 돈이 좀 달라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 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 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얹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하였다.

그는 빈 술병을 흔들며 겨우 반 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 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사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예,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임 씨가 볼펜 심으로 쿡쿡 찌러 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의 뼈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칠만 원이면 되겠습니다요.”

선언하듯 임 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칠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칠만 원요? 그럼 옥상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폰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 봐요. 처음에는 십팔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 해 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써비스로다가…….”

“써비스?”

그는 아연해서 임 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써비스할 때는 써비스도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토끼띠이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폰이라도 더 깎아 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 저는요, 받을 것 다 받은 거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 주세요.”

임 씨는 아내가 내민 칠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일 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 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나 뒤서거나 내려가면서 임 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라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써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중략 부분의 줄거리] 그는 자신의 집수리를 마친 임 씨와 함께 동네 형제 슈퍼에서 맥주를 마시게 된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임 씨가 스웨터 공장주에게 연탄값 8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정과 연탄값을 떼먹은 공장주가 가리봉동에 큰 공장을 차렸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임 씨는 술에 취한 채 떼인 돈 80만 원을 받으러 일감이 없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형씨,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소. 토끼띠면 어쩔 거여.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

“저런 것도 집 축에 끼나…….”

이번엔 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 씨의 말에 가로채여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난 말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요, 보증금 백오십만 원에 월세 삼만 원짜리 지하실방에서 여섯 식구가 살고 있소.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아파트요, 맨션아파트!”

임 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귀에는 꼭 맨션아파트처럼 들렸다.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구.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나댈기지, 나는 나대로 이 짓 해서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임 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는 선뜻 임 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돌고 도는 돈 본 놈 있음 나와 보래! 우리 같은 신세는 평생 이 지랄로 끝장이야. 돈? 에이! 개수작 말라고 해.”

임 씨가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다. 그 바람에 기우뚱거리던 맥주병이 기어이 바닥으로 나뒹굴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모두 다 소용없는 일이야!”

임 씨의 기세에 놀려 그는 또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나중에는 임 씨 역시 맨션아파트에 살게 되고 달걀 프라이쯤은 역겨워서, 곰국은 물배만 채우니 싫어서 갖은 음식 타박에 비 오는 날에는 양주나 찢끔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천 번 만 번 참는다고 해서 이 두터운 벽이,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발밑으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그는 임 씨의 핏발 선 눈을 마주 보지 못하였다.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의심하며 손해 볼까 두려워 궁리를 거듭하던 꼴을 눈치채이지는 않았는지,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 버리는 느낌이었다. 제아무리 탄탄해도 라면 가닥으로 유지되는 사내의 몸뚱이는 술 앞에서 이미 제 기운을 잃고 있음이 분명했다. 임 씨의 몸이 자꾸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점차 술이 깨고 있었다.

“어떤 놈은 몇 억씩 챙겨 먹고 어떤 놈은 한 달 내내 뼈품을 팔아도 이십만 원 벌이가 달랑달랑한데, 외제 자가용 타고 다니며 꺼덕거리는 놈, 룸싸롱에서 몇십만 원씩 팁 뿌리는 놈은 무슨 재주로 그리 사는 거야? 죽일 놈들, 죽여! 죽여!”

임 씨의 입에 거품이 물렸다.

“비싼 술 잡숫고 왜 이런당가요, 참으시오. 임 씨 아저씨. 쪼매 참으시오.”

김 반장이 냉큼 달려들어 빈 술병과 잔들을 챙겨 갔다. 임 씨는 탁자에 고개를 처박고서 연신 죽여, 를 되뇌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사내의 빛바랜 얼굴만 쳐다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죽일놈들’ 속에는 그 자신도 섞여 있는 게 아니냐는, 어쩔 수 없는 괴리감이 사내의 어깨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문제 8]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제시문의 ‘그’가 ‘임 씨’에게 품었던 의심이 공감과 이해로 전이되는 계기가 되는 소재를 제시문

에서 찾아 쓰시오.

— <보기> —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공감의 플롯’을 가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감의 플롯’이란 등장인물이 처음에는 타인을 불신하고 이질감을 느끼다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거나 자신과의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점차 타인에 대해 공감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플롯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등장인물의 태도 변화, 즉 등장인물이 처음에 가졌던 이질감이 공감과 이해로 전이되는 과정이다. 이때의 공감과 이해는 단순한 동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태도를 돌아보는 성찰과 같은 윤리적 태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타인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출제 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이해하고 작품 자체를 하나의 언어 예술로서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출제하였다.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러한 인물에 대한 이해가 소설의 이야기 구성 안에서 미세하게 변화되는 지점을 포착하여 소설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최원식 외	창비	2019	284
	문학	정호웅 외	천재교육	2019	53

5. 문항 해설

문제는 <보기>를 통해서 공감의 플롯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설명하고, 양귀자의 소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으로 가야한다」를 공감의 플롯으로 읽는 독법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공감의 플롯에 착안해 작품을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인물에 대한 이해의 내용이 변화하는 것임을 파악하고 소설 제시문 안에서 그러한 재인식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찾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보기>에 있는 “등장인물이 처음에 가졌던 이질감이 공감과 이해로 전이되는 과정”을 눈여겨 보고,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의심하며 손해 볼까 궁리를 거듭하던 꼴을 눈치채이지는 않았는지”라는 구절을 통해 주인공인 ‘그’가 ‘임 씨’를 종일 의심하다가, 해당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심리를 들켰을까봐 걱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그’가 ‘임 씨’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의심에서 이해로 전이되는 계기가 되는 소재가 ‘견적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 ‘견적서’는 ‘분홍 편지지’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를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으므로 제시문에서의 표현을 그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

6. 채점 기준

- 정답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
- 정답 외에 다른 답안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 부분점수 없음.

답안	배점
(분홍) 편지지 또는 견적서	10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답안	배점
----	----

(분홍) 편지지 또는 견적서	10
-----------------	----

1. 일반 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문항번호	인문B / 문제9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핵심개념 및 용어	음운 변동
예상 소요 시간	2분 / 전체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9]

<보기>는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③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 <보기> —————

‘학교’는 [학교]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운 변동 중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일상 언어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음운 변동에는 된소리되기 외에도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모음 탈락, 반모음 첨가, 거센소리되기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아래의 단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찾아보자.

단련 옳다 해돋이

① 단련: _____

② 옳다: _____

③ 해돋이: _____

3. 출제 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음운의 체계와 변동과 관련지어 출제하였다. 자료의 내용을 파

악하면서 동시에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출제하였다. 언어의 특성 중에서 특히 관찰되는 다양한 음운의 변동을 이해하고, 실제 자료에서 관찰되는 이들 현상을 분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10국04-02]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10국04-03]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신유식 외	미래앤	2019	198
	국어	이삼형 외	지학사	2019	147

5. 문항 해설

- ① ‘단련’은 [달련]으로 발음되는데, 이때 일어난 음운 변동은 유음화이다.
- ② ‘옳다’는 [올타]로 발음되는데, 이때 일어난 음운 변동은 거센소리되기이다.
- ③ ‘해돋이’는 [해도지]로 발음되는데, 이때 일어난 음운 변동은 구개음화이다.

6. 채점 기준

- ①, ②, ③의 각 항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에만 정답으로 처리함.
- 정답 외에 다른 답안을 추가로 기술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배점
①: 유음화	4
②: 거센소리되기	3
③: 구개음화	3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답안	배점
①: 유음화	4
②: 거센소리되기	3
③: 구개음화	3